

건협 전북, 제66회 정기총회 개최

2024년 사업계획 등 원안 의결... 장학금 전달식도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16일 오전 11시에 라한 호텔 전주에서 대표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는 16일 오전 11시에 라한호텔 전주에서 대표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소재철 회장은 “지난해는 새만금 썬버리 파행 이후 국회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는 지난 9일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수시 배정 해제’ 조치를 기점으로 새만금 SOC 사업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불안과 가격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지만 우리 건설업계의 현안 과제인 품질 및 일위대가 현실화를 통한 적정공시비와 적정공기 확보를 위한 발주처 관행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원 간의 화합과 역량 강화를 통해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내에 시행중인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한층 더 강도 있게 추진하여 회원사 일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승인, 202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고, 제28대 회장단 임기내 운영위원·윤리위원·분회 대의원 보선 위원의 건 등 총 4건의 부의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협회는 전주지역 지재단과 함께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원광대학교 이성민(토목환경공학과 2) 학생 등 우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지금까지 총 261명에게 2억8,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다. /김옥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16일 군산시 개정면 이종영씨가 관내 농지은행 1호 기입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 1호 가입자 탄생

농어촌공 전북, 젊은 농업인 중심 세대전환

올해부터 지원혜택을 대폭 강화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가운데 관내에서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군산시 개정면에 거주하는 이종영(79)씨가 관내 농지은행 1호 가입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월 39만원씩 5년동안 총 3,30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는 이씨는 “은퇴이양보조금을 받을수 있어 노후생활에 좀 여유가 생겼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은퇴·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할 경우, 매월 40만원~50만원(ha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청년농 등을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하여 세대전환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정문 본부장은 “고령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청년농으로 세대교체를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역량을 집중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기능 추가’ 최종 보고회 개최

바이오진흥원, 7개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주체·실무자 등 40여명 참석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북센터)에서 추진해 온 전북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의 기능 추가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16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종보고회는 전북 테크비즈센터에서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시·군 행정,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주체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보고회에서는 시스템 기능 설명 및 시연, 그리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직매장 부문 전북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협의체 운영위원을 선정하였다.

전북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은 광역단위 먹거리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일원화 관리체계 구축과 시·군 센터 간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2월 개발 완료되었다. /김옥기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전북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에서 추진해 온 전북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의 기능추가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16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센터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통합관리와 어린이집·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등에 적용할 웹쇼핑몰 고도화를 위해 기능추가 개발 용역 착수,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실무 적용 준비를 마쳤다. 이로써 전북자치도 및 14개 시·군은 지역 먹거리 수요처 종합관리, 학교·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광역 단위 기호생산 체계구축 등이 망라된 통합플랫폼 활용이 가능해졌다.

한편, 전북센터는 최종보고회 이후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에 개발된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직매장 실무자 대상 집합·온라인교육, 매장별 방문 교육 현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농업인 소통 강화 물관리 현장 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오재준)는 16일 장수군 소재 논개발행복나눔터에서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영농기간 소통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관련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례화하여 물관리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물관리 현장설명회는 지역 농업인의 물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이해 관계자간 소통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관련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례화하여 물관리현장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영농급수계획 보고를 통해 영농급수 추진일정등을 설명하고 농업인 불편사항 의견청취를 통해 애로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을 강화 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오재준 지사장은 “농업인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올 한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재해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순창 청정 참두릅,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인기 만점

순창군이 16일 서울 양재 하나로 유통센터에서 순창군 주최하고 순창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주관으로 두릅 관측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이병희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장, 김교근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김성철 순창농협장, 양준섭 동계농협장, 설득환 서순창농협장, 김순용 구립농협장 등 30여명이 참여해 순창 참두릅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번 관측행사는 오는 21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군은 순창 참두릅 300팩, 참두릅 장아찌 300통, 맛밤 300봉을 증정하는 등 특별한 이벤트를 실시해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대년군의 재배로 농가의 재배기술이 향상되어 맛과 품질이 우수하며, 일교차가 크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자란 순창 참두릅은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관측행사의 성공을 예감했다.

아울러 올해에도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1,500여개 매장에 60톤 정도를 납품할 예정이며 현재 가락 시장에서 특 기준 kg당 2만 1,000원에서 2만 6,000원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 참두릅이 지역 농민들의 대표 소득작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은 전국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참두릅 주산지로서 청정지역 순창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해 군 차원에서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작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은 전국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참두릅 주산지로서 청정지역 순창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해 군 차원에서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농신보 정읍권역보증센터, 청년후계농 교육

농림수산일자신용보증기금 정읍권역보증센터(이하 농신보 정읍센터, 센터장 이성진)는 지난 15일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청년후계농 선정자 51여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제도, 이용절차, 지원사례 등을 내용으로 한 신용 보증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신보 정읍센터에서는 후계농림어업인 관련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선정된 보증대상자들에 대하여 일반보증 지원과는 별도로 창업 5년 이내의 농림어업후계자의 경우 보증금액 최대 5억원(운전자금 3억원, 시설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 95%, 일반 후계농림어업후계자의 경우 보증금액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 90%로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정금액까지는 위탁금융기관에서 간이신용조사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이상 금액을 초과할 경우 농신보 정읍센터에서 직접 심사를 진행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센터장 이성진은 “경제 상황 등 농촌 현실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농신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답보 능력이 미약한 후계농림어업인의 영농 조기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농신보가 밑거름이 되어 농어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농림수산일자신용보증기금 정읍권역보증센터는 지난 15일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청년후계농 선정자 51여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제도를 내용으로 한 신용 보증 교육을 진행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